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은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우리 교회는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로 무수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영적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고 섬기는 만큼 지극히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제3도약기, 신속한 영의 흐름을 타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주님 마음을 닮아 하나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까지 ...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

성결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있는 인도 마라타나 신학교의 임마 누엘 목사와 섬세한 주님 사랑을 체험한 이민경 자매의 간증.

만민뉴스

제550호 2012년 9월 16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온 세상에 외치는 제단

초대교회처럼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



만민중앙교회는 개척 때부터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경이 눈을 뜨며 병어리가 말을 하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목발을 버리고 휠체어에서 일어나 걷고 뛰는 등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처럼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 부흥에 부흥을 거듭해 왔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역사, 생명을 주관하는 역사, 시공을 초월하는 역사, 영의 공간을 활용하는 역사를 통해 무수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1만여 자 협력교회를 이루게 하셨다.

주님의 부활 승천 후 서기 64년 로마 네로 황제의 본격적인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기까지 약 30년간의 교회사역은 실로 놀랍다. 성령의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물론, 소아시아와 그리스, 유럽의 중심부인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다.

초대교회의 사도와 성도들의 순교를 무릅쓴 복음 전파로 인해 결국 서기 313년 로마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기독교가 공인됐고, 서기 392년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대로마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게 됐다. 그 후로 신속하게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됐다.

하나님께서서는 1982년 만민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사 60:1)

말씀하시며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되도록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주셨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한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셨다.

지난 30년 동안 당회장 이재록 목사와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쉬 없이 달려왔다.

그 결과 국내에는 43개 지교회와 13개 지성전을, 해외에는 1만여 개의 지교회와 협력교회를 둔 초대형 교단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교회 창립 30년 만에 이처럼 급속도로 부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일까? 교회 부흥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천 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각색 병든 자들이 치유되며,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이 아시아와 유럽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은 폭발적인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같이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철저히 성경에 입각한 말씀과 그에 따르는 기사와 표적, 권능으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다(막 16:20, 행 2:22, 히 2:4).

이 외에도 44개 언어로 발간된 이 목사의 신앙 서적과 25개 언어로 발행하는 다국어 만민뉴스, 전 세계 170여 개국에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GCN 방송, 하나님 권

능을 의학적으로 증명하는 WCDN(세계 기독교사네트워크), 만민국제신학교(MIS)와 선교사 양성기관인 MMTC(만민세계 선교훈련원), 매주 전 세계 곳곳에서 개최되는 목회자 세미나와 손수건 집회(행 19:11~12)를 통해 수많은 영혼을 변화와 생명으로 이끌고 있다.

이러한 열매를 맺기까지 친히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며 믿음을 내보일 때마다 놀라운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앞으로도 전 세계 70억이 넘는 영혼들이 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만민중앙교회는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섭리를 이루기 위한 믿음의 행보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4)

사람들은 저마다 양심이 다르고 지식도 다릅니다.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배우며 체험한 것이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식 중에는 오류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굳어지면 자신만의 ‘의’와 ‘틀’이 형성됩니다.

‘의’란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이며, 이것이 굳어지면서 ‘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격이 틀이 되기도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하나의 틀이 되기도 합니다. ‘틀’은 마치 단단한 골격과 같아서 자신만의 모습을 만들 뿐 아니라 일단 형성되면 깨지기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생각도 대개 의와 틀에서 나옵니다. 자격지심이 많은 사람은 부자가 옷깃만 여머도 ‘웃 자랑한다.’ 생각하고 누가 어려운 문자만 써도 자기를 무시한다고 느낍니다.

초등학교 시절, 저는 선생님에게서 자유의 여신상이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에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초, 연합성회 인도차 미국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의 지식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샌프란시스코가 아닌 뉴욕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내가 옳다고 믿는 것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저마다 옳다고 주장하는 것 중에는 옳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교만하면 자신이 틀려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주장하다가 변론으로 이어집니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설령 자신의 주장이 옳고 상대가 틀려도 변론하지 않습니다. 백 퍼센트의 확신이 있다 해도 만에 하나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두지요. 굳이 상대를 누르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마음에는 그만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영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상대가 자신보다 가난하든 배움이 적든, 힘이 약하든 진심으로 자신보다 낮게 여기지요. 설령 어린아이라 해도 그 마음을 배려합니다. 모든 영혼은 예수님 피 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존귀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 육적인 교만과 영적인 교만

대체로 눈에 띄게 자신을 뽐내고, 남을 무시하는 등 겉으로 드러나는 교만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육적인 교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진리를 알면 버리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버려집니다. 반면 영적인 교만은 스스로 발견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버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교만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말씀을 들어 많이 압니다. 직분과 사명을 받아 위치가 높아지기도 하지요. 그러다 보면 자신이 아는 말씀을 마음에 이룬 것처럼 착각합니다. 또 상대를 지적하고 판단, 정죄하면서도 자신은 진리로 옳고 그를 분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꼭 지켜야 할 절차를 자신의 유익을 좇아 무시하기도 합니다. 명백히 질서를 거스르는 행동인데도 ‘나는 이만한 위치에 있으니 괜찮다. 나는 예외다.’라고 생각하지요. 이처럼 높아진 마음을 영적인 교만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이는 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 정죄하는 마음 또한 진정한 사랑이라 할 수 없지요.

사람은 누구나 성결하기 전에는 교만한 질 수 있는 속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죄성을 뿌리째 뽑아 버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불같은 기도로 온전히 뽑아 버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다시 교만한 모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치 잡초를 잘라내도 뿌리가 남아 있으면 다시 싹을 틔우는 것과 같습니다. 즉 죄성을 마음에서 온전히 뽑아 버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시 교만이 틈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생명 다해 섬기는 최고의 사랑을 이루기까지 변함없이 달려가야 합니다.

3. 자신을 믿고 사는 교만한 사람들

느부갓네살 왕은 대제국 바벨론의 황금시대를 열었던 사람입니다. 고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공중 정원’도 그의 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국과 업적을 오직 스스로 이뤘다고 자랑하며 자신을 신처럼 숭배하게 했지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그에게 세상 주관자가 누구인지 깨우쳐 주십니다 (단 4:30~32).

결국 그는 왕궁에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뜯어 먹고 머리를 풀어헤친 채 광야에서 7년 동안 짐승과 다름없는 생활을 합니다. 7년 후 정신이 돌아온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지요 (단 4:33~37).

비단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나 자신을 믿고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과학과 의학이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태풍, 지진 등의 천재지변이나 신종 질환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과 세상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돕기 원하시지만 사람 편에서 교만해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간섭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원수 마귀 사단의 꾀방에서 보호받을 수도, 형통하게 인도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어리석다’ 하십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생들은 모두 미미한 존재일 뿐입니다. 설령 아무리 자랑할 것이 많다 해도 이 세상은 잠시잠깐일 뿐이며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결국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고 섬긴 만큼 천국에서 높은 사람이 됩니다. 야고보서 4:10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사리라” 하신 대로 주님께서 높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으로 자신을 낮춰 하나님 앞에 지극히 큰 자, 존귀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믿음과 소망은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 한시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영적인 사랑의 15가지 속성 중 다섯 번째는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히 싫어하시는 악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입니다.

1. 교만한 사람의 특징

교만이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못하고 무시하는 것, 내가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제일로 여기니 매사에 상대를 무시하고 가르치려 합니다. 보통 자신보다 못해 보이는 상대에게 나타나지만 심한 경우에는 윗사람까지도 무시하지요.

이런 사람과 대화를 하면 곧잘 변론으로 이어져 다툼이 생깁니다. 심하면 서로 자신이 옳다고 핑계를 내며 싸움으로 번지기까지 합니다. 잠언 13:10에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했으며, 디모테후서 2:23에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앎이라” 말씀합니다.

교회 오시는 길



- 교회버스** (교회 차량/ ☎ 02) 818-7391~5)
주일·금요일야 각 지역별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지역(번 출구)/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번 출구) 도보 10분
- 시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503,504,571,652,5618,5619, 5626,5630,5712,5714
연희대용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651,5528 504,643,5626
구로디지털지역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 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 5625,5627,5633,5713,6512,6635,금천0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5536, 5615(편도), 5616(반대편 편도)

만민중앙교회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대학·가나안·청년·바울·마리아]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시·열차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간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간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070-8240-5609 02) 851-3845 (예금주 위성영)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 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
 대표전화 02) 818-7000

제3도약기 :: 2010년 이후

급속한 영의 흐름 속에 하나님 섭리 이루다

1982년 10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표어 아래 창립예배를 드린 만민중앙교회는 제1도약기를 맞아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와 같이 부흥에 부흥을 거듭했다. 그 결과 1993년에는 미국 '크리스천 월드' 지에서 세계 50대 교회로 선정했으며, 이후 민족복음화는 물론 세계 선교를 위해 힘써왔다.

2000년 3월, 무안 바닷가의 짚물이 단물로 바뀌는 창조의 권능이 나타났다. 이후 제2도약기에는 CNN에 보도된 우간다 연합대성회를 시작으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파키스탄, 인도, 중동, 이스라엘 땅에 이르기 까지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무수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

2010년 1월, 제3도약기를 맞아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잘되는 진정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기 시작하셨다. 성령의 주관대로 하나님 뜻을 구하며 응답받기까지 기도, 물질, 선교 등 믿음의 행함을 꾸준히 쌓아 공의에 합당하게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도록 급속한 영의 흐름을 주관하신 것이다. 여기에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많은 희생과 헌신이 따라야만 했다.

특히 8월부터 주일 저녁예배 후 열린 '미니 은사집회' 시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빛 되신 하나님 자녀로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 목사의 간절한 외침은 성도들을 회개케 했으며, 주님을 향한 결단으로 변화돼 나오게 했다. 이후 대학생들을 시작으로 '새 예루살렘 가기 운동'이라는 전 성도 '영적 회복 운동'이 일어났다.

그 결과 12월 25일, 하나님께서는 만민 위에 축복의 날을 허락하셨다. 이날을 기점으로 전 성도는 그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자신을 위해 간구하시는 목자의 사랑을 깨달음은 물론, 죄인된 자신을 대신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주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리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며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게 됐다.

한편 10월에 개최된 '에스토니아 연합성회'는 에스토니아 기독교 역사상 최대 인원이 모여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치유의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하며 마지막 때 하나님 섭리를 이루기 위한 더 큰 권능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2012년 1월 1일, 하나님께서는 만민중앙교회가 마지막 때 섭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성도들이 '신속히, 더 신속히, 더 신속히'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산상에서 기도하게 하셨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며 70억이 넘는 전 세계 영혼을 진정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주님의 사랑이 아닐 수 없다.

7월에는 '지역장·조장·구역장 교육'을 통해 영의 단계를 세분화해 알려주심으로 영과 온 영의 마음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에 자신감을 갖게 하셨다. 또한 교회 개척 30주년 기념 주일에는 새로운 도약 곧 대반전의 역사와 재창조의 권능을 선포케 하셨다. 마지막 때 하나님 섭리를 이루기 위한 모든 인내의 시간들은 결국 공의에 따른 심음이 돼 더 큰 하나님 역사를 펼치기 위한 도약대를 만들어냈다.



이후 공의를 뛰어넘는 사랑으로 이 땅에서 육의 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영의 공간을 펼쳐 창조주 하나님의 근본 된 권능을 마음껏 나타내신 주님을 본받아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와 전 성도는 크고 놀라운 성령의 권능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이다. 전 세계 만민을 참된 구원의 길로, 진정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자녀,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전도할 것이다.

2011년 1월, 러시아어권 최대 기독교 포털 사이트 '인빅토리'와 영어권 기독교 포털 사이트 '크리스천텔레그래프'에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2년 연속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역자 10인'에 선정 보도했다.

하나님께서 권능이 날로 더하게 하시며 5월부터는 영의 공간에서 나오는 근본 하나님의 빛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아름다운 오로라 빛으로 축복해 주셨다(겔 1:27~28, 계 4:3). 6월에는 '3회 연속 특별 은사집회'가 개최돼 수많은 사람의 시력이 회복되고 질병이 치유되는 등 권능의 역사가 크게 나타났다.

7월에는 '전국 기관장 교육'을 통해 믿음의 반석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아홉 가지 사함을 점검하며 영과 온 영의 믿음을 향해 힘차게 이뤄가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며,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자발적으로 송구영신예배를 맞이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교회가 됐다.





임마누엘 목사
(인도 첸나이 마라나타 신학교 학장)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신앙심 깊은 어머니에게 양육받은 저는 어려서부터 주님께 헌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서원 기도도 있었지만 스스로의 열망이 더 컸지요.

저는 담임 목사님을 도와 교회 사역에 전념하면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각종 신학 세미나와 콘퍼런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많은 것을 배워나갔습니다.

1993년 교회를 개척한 뒤 2003년부터 마라나타 순복음교회 부목사로, 2007년부터는 마라나타 신학교 학장으로 하나님께서는 제 길을 섬세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신학교 교수로, 목회자로서 사역하다보니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에 담긴 참뜻을 알고자 갈급했습니다. 이런 제게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응답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재록 목사님을 통해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저는 인도 마라나 해변에서 개최된 '2002 이재록 목사 초청 인도 연합대성회'를 잊을 수 없습니다. 당시 저희 마라나타 신학교 교수와 학생들은 자원봉사를 하며 성회에 참여했지요. 연인원 300만 명 이상이 모인, 그야말로 인도 기독교 역사상 기념비적인 성회였습니다.

이재록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직접 본 하나님 권능의 역사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또한 인도 영혼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재록 목사님의 모습은 같은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는 제 가슴에 커다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후 만민의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협력을 해 오던 중 뜻밖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2009년 10월, 인도 첸나이만민교회 한정희 목사님이 제게 타밀어 번역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이재록 목사님의 자서전 『나의 삶 나의 신앙』을 번역하게 되니 행복했습니다. 이 일이 제게 축복이었음은 두말할 나위 없지요. 번역을 하면서 저는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이 목사님께서 증거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제 삶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마라나타 신학교에 새로운 교육 비전 세워

저는 성결을 강조하는 복음을 신학교에 보급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2월과 4월, 한정희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재록 목사님 설교를 주제로 한 '믿음의 분량', '십자가의 도', '교회 성장 비결' 강의는 교수와 신학생들에게 영적 깨달음을 주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지난 7월부터는 '십자가의 도', '믿음의 분량', '기도', '신앙의 기초(레위기 강해와 십계명)'를 정식 교과 과목으로 채택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과 신학생들은 이재록 목사님의 영적인 말씀을 배울 수 있음에 감사해 하며 앞으로 더 많은 말씀을 수강하길 희망했습니다.

현재 신학교 도서관에는 이재록 목사님 신앙서적 중 영문판 24종과 타밀어판 2종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 저서들을 통해 신학생들은 하나님 말씀의 영적 의미를 깨우칠 뿐 아니라 무엇보다 기도하는 삶으로 변화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교육 비전을 세워 하나님의 참뜻을 가르치는 마라나타 신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섬세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멋진 연주를 할 수 있었어요”

이민경 자매 (1-1가나안선교회, 닛시오케스트라 단원)

“모스크바에서 초청 연주회를 하는데 찬조 출연해 줄 수 있어요?”

2012년 5월 말, 뜻밖의 전화에 가라성 같은 교수님들과 함께 무대에 설 수 있다는 설렘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작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한국을 빛낼 유망 연주자 초청 연주회'에서 저의 마림바 연주를 들으신 차이코프스키 국립음대 갈리나 부총장님과 주최 측의 적극적인 추천이 있었다고 합니다.

6월 오프닝 연주 결정, 연주회까지 두 달 남짓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아리랑'과 러시아 민요 '백만 송이 장미'를 마림바에 맞춰 편곡했습니다.

출국 일주일 전, 바쁜 일상으로 연습에 집중하지 못한 탓에 큰 부담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런데 꿈에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나타나 “능력 받았으니 잘 할 거예요.” 라고 격려해 주셨지요. 그 뒤 한 주밖에 남지 않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행복한 마음으로 집중해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연주회 사흘 앞두고 도착한 모스크바, 갈리나 부총장님은 저를 위해 마림바 담당 교수님께 매일 3시간이 넘는 개인 레슨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8월 23일 연주회 당일 새벽, 저는 며칠 내내 긴장한 탓인지 갑자기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호흡이 가빠지면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지요. 우선 mp3 플레이어에 저장된 당회장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고 권능의 무안단물(출 15:25)을 마셨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뜨거워지며 막혀 있던 무언가가 아래로 쭉 내려가는 느낌을 받았지요. 거짓말처럼 어지러움과 구토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주님의 섬세하신 사랑에 깊은 감사 기도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연주회, 저는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가슴에 품은 채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청중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울려 퍼지는 아리랑의 선율, 이어지는 경쾌한 리듬의 백만 송이 장미까지... 한 음 한 음 칠 때마다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청중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고 무대에서 내려오자 제게 마림바를 레슨해 주신 교수님은 연신 '베리 굿'을 외치셨지요. 대담한 연주와 곡의 맛을 낼 줄 아는 데다 시종 미소를 잃지 않는 멋진 무대 매너까지 갖췄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섬세하게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침례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010-9818-983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9번지 복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4575-1934
- 새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1동 1281 지하 ☎070-8764-3000, 010-7703-42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09-4 시청 강 건너편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림동 188 온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372-1002, 010-2290-7779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197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장흥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서량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956 ☎043)211-1955,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두전사거리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말양만민교회 경남 말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심리 965-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정동 909-10호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영로 281번지 중앙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미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진주만민교회 전북 진주시 원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853-0675, 011-637-0263
- 곡산만민교회 전북 곡산시 나운동 798-7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2-1(순환대로 637)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담양지성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0-5 ☎02)556-8517~8, 010-7223-2073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수유 3동 188-26 ☎02)995-9951, 011-1717-1217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 508-1 ☎031)485-9143, 017-366-5914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1-287-7369
- 김천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 698-12 ☎032)569-3835, 010-7720-7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람동 367-4 ☎010-6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9-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2290-1856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 1동 348-5 ☎02)489-3766, 010-3330-3172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528-3830, 010-7720-7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2213-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총리동 465-4 ☎031)635-9103, 010-2718-7458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2251-3149